

나주시, 한센인 진료 위탁 예산 '주먹구구'

2011년 대비 22명 감소...예산은 오히려 400만원 증가 市 "통계 파악 안해...한센복지협회 청구대로 주고있다"

나주시가 한센인 진료위탁 예산을 산정하면서 정확한 환자 수를 파악하지 못해 말썽을 빚고 있다. 환자인원수 대로 예산을 세워야 하지만 감소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나주시와 한국 한센 복지협회에 따르면 나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은 올 3월 기준 177명이다. 이 가운데 일제강간 동안

재발방지를 위해 약을 투약하는 환자는 148명이고, 나머지 29명은 요(要)관찰자이다.

나주시는 한센인들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한국 한센 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에 위탁하고 있다.

문제는 한센인 1세대의 고령으로 해마다 그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위탁수수료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지난해 관내 한센인중 치료·관찰 대상자 188명에 대한 위탁 수수료 1950만원을 한센 복지협회에 지급했다.

반면, 올해 나주 관내에 한센인 치료·관찰 대상자는 177명으로 지난해보다 11명이 줄어 들었다.

하지만 시에서 한센 복지협회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지난해 1950만원과 동일하게 책정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보건소는 "한센 복지협회에서 청구하는 금액대로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필요한 예산을 먼저 파악하고, 예산을 책정해야 하지만 무작정 지난해 인원수에 맞춰 돈을 지급한 셈이다.

나주시지역의 한센인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나주시가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책정한다면 낭비되는 돈도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 현재 나주시지역 한센인 인구는 지난 2011년과 비교해보면 22명이 줄었다.

반면 나주시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400여만원 늘려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또 나주시가 보유한 한센인 통계가 이처럼 부정확한데도 관련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한센병은 정부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한센인 수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위탁 수수료는 광주 한센인협회에서 필요한 만큼 청구하면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빛가람 가족들 나주 탐방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6개 기관의 임직원과 가족들이 최근 국립 나주박물관을 방문해 토기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나주 탐방행사는 세지 화합마을 옥수수따기·방사란 줌기, 천연염색관문화관 쪽 물들이기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전북 소식

정읍 동학혁명 특별전 18일 개막

덕천면 하학리 동학기념관

유물·포스터 입상작 전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은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시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 전(展)'을 개최한다. 앞서 18일 오후 3시 전국유족회장과 천도교 인사,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단체인, 관련 지자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는다.

특별전의 주제는 동학농민혁명의 의의와 정신이 전국과 세계로 넓게 퍼져나가 미래에 전승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전시는 ▲전국화 파트 ▲

세계화 파트 ▲미래화 파트 등 3개로 나뉘어 열린다.

우선 '전국화' 파트는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을 소개한다. 1894년 호남지역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점령 무렵부터 확대된 동학농민혁명은 한경도 지역을 제외한 전국적 대규모 민중항쟁이었음을 드러낸다.

'세계화' 파트는 동학농민혁명과 유사한 전개과정과 특징이 있는 세계의 혁명들을 살펴보고, 인류가 추구한 공동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장을 마련했다. 중국의 태평천국 역사박물관의 소장유물을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다.

또한 '미래화' 파트는 지난 2월부터 중·고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스터 공모전의 입상작 21점을 소개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js@

순창 섬진강변 갯곶으로 꾸민다

장군목 일대 등 4만5000㎡

순창군이 섬진강변에 갯곶 단지를 조성한다.

순창군은 동계면 장군목 일대를 비롯해 섬진강 체육공원, 화탄마을 입구 등 섬진강 상류 4만5000여㎡에 갯곶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말까지 갯곶 식재를 위한 잡초 제거와 발갈이를 마쳤다.

이달 말까지는 씨앗을 파종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비료 주기와 주변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특히 갯곶단지 조성사업에 취약계층 인력을 활용하고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조성사업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등 20명의 주민이 투입되면서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도움을 주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야생 갯곶 단지가 조성되면 내년 봄부터는 장군목 등 섬진강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이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새 얼굴

"군민의 안전보호망이 되겠다"

정 현 근 담양소방서장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본연의 역할과 기본원칙에 충실한 소방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4일 취임한 담양소방서 정현근(59) 신임 서장은 "연일 끊이지 않는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군민 안전보호망을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의 보다 완벽한 현장 대응과 안주하는 소방행정을 탈피해 도전하는 소방공무

원의 자세로 직원 상호간 존중하고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성 출신인 정 서장은 지난 1983년 소방직에 입문해 영광소방서 소방과장, 담양소방서 소방과장, 전남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강경화씨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목포 고용노동청 서면 근로계약 일제점검

편의점 등 650개소 대상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황선범)은 오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편의점을 비롯해 패스트푸드점,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건설현장 등 650개소를 대상으로 서면(書面)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14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화한 이후 서면 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산업현장에 점차 확산되고는 있으나,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36.7%), 건설업(33.9%) 등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아 임금체불 등 노사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검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등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 이행실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명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별도의 시정지시 없이 바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대상 업종은 프랜차이즈 업체(24시 편의점, 제과 제빵 도·소매점, 패스트푸드점)와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공사금액 100억 미만 건설현장 등 관내 650여 업체이다.

황선범 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성기자 kjs0533@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우수 공기업 선정

남원시 상수도사업소(소장 남정식)가 안전행정부 주관의 2014년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됐다. 전국 328개 지방 공기업 중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리더십과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4개 분야의 서면평가와 현장 확인평가 등을 거쳐 실시됐다.

이번 평가에서 남원시는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으로 시민제일주의 실현 ▲깨끗한 물공급으로 시민건강과 행복향상이라는 경영 전략으로 상수도 공기업 운영에 온

▲상수도 유수율(有收率)을 높이고 단수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점 등 뛰어난 경영개선 시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채 150억을 투자해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향교동 옛 경찰서에 있던 사무실을 정수장 부지내로 이전해 불의의 사고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체계를 구축해 호평을 받았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NAVER **단비플라워** 농협(박배성) 302-0316-649511

죽아화관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4성급★ **호텔건물매매**

-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피숍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평)/건축연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696-8701

아주 싼 녹지지역
전원주택 및 사찰 부지 최적!
동일 조건에서 더 싼 땅은 없습니다.

- 지역: 보전녹지지역
- 지목: 전
- 면적: 3,716㎡
- 매가: 3.3㎡당 35만

소액 투자
완도군 고금면 농상리 고금-신지 국도 주변 바닷가. 경사 완만. 전망 좋음.

- 지역: 관리·농림 혼합
- 지목: 전 및 임야
- 면적: 8,569㎡
- 매가: 3.3㎡당 3만

최고의 전원주택지
서구 세하동 최고 요지
정남향 앞도로 접, 조망권 최고!!

- 지역: 1종 주거지역
- 지목: 전
- 면적: 1917㎡
- 매가: 3.3㎡당 120만

행운(구 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송창석
011-642-7777

收益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용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